



# 재건 중인 '지금' 만 느낄 수 있는 슈리성을 가까이서 감상해 보세요.

2019년 10월 31일 발생한 화재로 정전을 포함한 9개 시설이 소실되었습니다. 현재는 국내외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으며, 「보여주는 부흥」을 주제로 한 걸음씩 착실하게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복원 공사는 정전부터 착수하였으며, 공사 중 비바람과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던 '가설 지붕'이 해제되어 약 6년 만에 슈리성 정전이 오키나와의 푸른 하늘 아래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. 이후에는 2026년(레이와 8년) 가을 완공을 목표로 정전 내부와 양측 회랑, 가설 계단 등 공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.

- 안내소
- 화장실
- 수유실
- 기저귀 교환대
- 구호실
- AED (자동심장충격기)
- 대여 센터 (휠체어·지팡이·유아차)
- 주차장
- 자전거·오토바이 주차장
- 에스컬레이터
- 엘리베이터
- 흡연소
- 음식점
- 매점
- 코인락커

무료 구역      유료 구역



**1 슈레이문**



편액의 '슈레이노쿠니(守禮之邦)'는 '류큐는 예절을 중시하는 나라이다'라는 뜻. 오키나와 전투에서 파괴되어 1958년에 복원됐습니다.

**2 소노한우타키 석문**

**세계 유산**



국왕이 외출할 때 이 석문 앞에서 안전을 기원했습니다.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부 파괴되어 1957년에 복원. 2000년 12월에 세계 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.

**3 제32군사령부호**



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에 대비하여 옛 일본군이 슈리성 지하에 건설한 사령부 병커로,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귀중한 전쟁 유적입니다.

**4 류히**



용의 입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이 이름의 유래. 조이센문 바로 앞이며, 왕궁과 내빈의 소중한 식수였습니다.

**5 고후쿠문**

**대표소**



편액의 '고후쿠(広福)'는 '복을 널리 퍼뜨린다'는 뜻. 동쪽은 호적을 관리하는 '오쿠미자(大与座)', 서쪽은 절과 신사를 관리하는 '지사자(寺社座)'가 있었습니다.

**6 호신문**

**개찰소**



3개의 입구 중 가운데 문은 국왕 등, 한정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. 개문을 알리는 아침 의식 '우케조(御開門)'를 볼 수 있습니다.

**7 슈리성 부흥 전시실**



사자 기와 등 화재 후 남은 물건의 전시와 슈리성 부흥을 위한 발자취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. 전시 내용은 알리는 아침 의식 '우케조(御開門)'를 볼 수 있습니다.

**8 요호코리덴**



국왕이 승하하면 차기 국왕의 즉위 의례가 이루어지는 곳. 현재는 대형 모니터로 류큐왕국의 역사와 슈리성 정전 유구의 매력 등을 소개합니다.

**9 아가리노아자나**



성곽 동쪽에 세워진 전망대로 슈리성공원 일대와 나하의 거리를 둘러 볼 수 있습니다.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'東'을 현지 방언으로 '아가리(일본어로 올라온다는 뜻)'라 합니다.